

“제정신인가요” 이낙연 ‘반명’ 빅텐트에 지역 맹비난

강기정 시장 “내란세력과 거래 멈춰야”

이병훈 전 의원 “민주당 · 국민에 도리 아니다”

김원이 의원 “남은 여생 조용히 살아가시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하며 한 때 ‘호남 대명론’에 불씨를 지폈던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국민의힘 등과 ‘반명(반 이재명)’ 빅텐트 연대 의사를 표명하자 지역 정치권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반 이재명을 위해 내란 세력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강 시장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을 생각하고, 찬바람 맞으며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을 기억해야 한다. 내란 세력과 거래는 있을 수 없는 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병훈 전 민주당 의원도 이 상임고문의 ‘반명’ 빅텐트 합류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극구 만류했다. 이 전 의원은 이 상임고문이 지난 20대 대선 경선에 출마했을 때 후

보 캠프 대변인을 맡았다.

이 전 의원은 “이번 대선은 탄핵정국을 심판하는 조기 대선이다. 탄핵정국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와 맥을 같이 한 한덕수 총리와 연대설까지 나온다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전남지사, 국무총리에 이어 당 대표까지 역임하신 분이다. 정치인은 자신과 당파의 이익을 우선하고, 정치가는 자신의 이익에 앞서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단결시킨다고 한다”고 이 상임고문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이 전 의원은 “지금은 장삼이사도 국난 극복에 함께 해야 할 때라는 걸 안다”며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정치 끝에 무엇이 남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전 의원의 글에 이 상임고문 지지자 등이 이재명 후보

를 비판하는 글을 남기자, 문금주 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검찰과 국회 프레임에 갇혀 원내 제1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 약단을 퍼붓는 분들 자제하세요. 정의는 언제 나 밝혀지고 승리한다”고 반박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목포)도 “당신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발굴하고 민주당이 키운 사람 아닙니까. 내란 동조 정당 국민의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아바타 한덕수와 빅텐트라니요. 제정신인가요”라며 이 상임고문을 직격했다.

김 의원은 “당신을 키운 전남도민에 대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우리 호남의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남은 여생 조용히 살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대선 출마 자체를 요구했다.

이 상임고문은 고창인 전남 영광군 선거구에서만 내리 4선(16~19대)을 하고 전남도지사에 당선된 후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내는 등 정치 뱃줄을 전남에 묻은 정치인이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해 당선되며 5선 고지에 올랐다. 2020년 8월에는 민주당 대표로 선출되며 한 때 대선 후보 선호도



광주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 체험 행사

광주유아교육진흥원이 29일 기관 내·외부에서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행복 쑥~! 상상 쑥~! 꿈이 있는 어린이날’에서 어린이들이 특별가족체험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1위를 달리며 ‘호남 대명론’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험투를 벌인 끝에

낙선해 정치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김도기 기자

“버스터미널 복합화, 주거 516세대 걱정”

강기정 시장 “추가협상 없어… 신세계측이 주거 규모 제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29일 “신세계 측이 터미널 부지에 계획하고 있는 주상복합시설 주거 규모에 대해 516세대에서 더 늘릴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천터미널 부지의 주상복합시설 주거 규모는 신세계 측과 사전 협상을 통해 충분히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시장은 “지난 2023년 11월 광주시는 신세계·금호와 함께 광천터미널 복합화 랜드마크 조성 MOU를 체결했고 지난해 1월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를 방문해 주거가 포함

된 복합도시 필요성을 논의하고 고민했었다”며 “이후 그해 8월 신세계는 광천터미널 기본 계획안 검토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는 신세계측이 제안한 검토신청서를 토대로 관계부서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회의를 세 차례 열어 논의했고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지난해 10월 신세계 측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협상대상지 선정 통보 당시 시의 최대 고민은 주상복합시설의 주거시설 적정 세대수였다”며 “이미 광주 주택 보급률이 105.2%에 달해 있고 미분양 주택도 5728세대

로 많아 주택 공급의 민감성과 부동산 시장을 주의 깊게 살펴본 결과 광천터미널의 주거시설 적정 세대수는 516세대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세계 측에서 사전협상 지침과 원칙에 입각해 협상 제안서를 제출하면 광주시는 신속·투명·공정 원칙에 입각해 사업 조정 협의회를 통해 사업계획을 확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신세계 측이 제안서 제출 이후 주거규모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강 시장은 “당초 광주시는 광천터미널 개발과 사업을 할 때 주거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았었고 일본 방문 이후 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감했었다”며 “이후 신세계 측에서 먼저 516세대를 제안했었다”고 설명했다. /김도기 기자

도, 전략예산 반토막 후 끼워넣기 지원 논란

우주발사체 예산 10억 ‘자진 삭감’→‘줄기세포’ 10억 증액

전남도가 침체의 늪에 빠진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을 목표로 올해 첫 추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 전략사업 예산 중 10억원을 자진 삭감한 뒤 사실상 특정 ‘끼워넣기 사업’에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전남도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본예산 12조5436억원보다 5373억원(4.3%) 증액된 1차 추경안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상임위, 22일 예결특위 심의를 각각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14건 18억5740만원을 삭감하고, 45건 38억4647만원을 증액했다. ‘민생 추경’임을 감안해 전남형 기본소득 128억원이 원안대로 반영됐다.

삭감 예산 중 가장 많이 삭감된 사업은 전략산업국이 제출한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구축사업’으로, 추경에 20억1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최종 10억1000만원으로 반토막났다.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액으로, 전체 삭감 예산의 53.8%에 이른다.

당초 이 사업은 국비 35%, 도비 20%, 시·군비 45%를 더해 총 274억원이 투입되는 전남의 핵심 전략사업 중 하나로, 전남도는 발사체기업 원스톱 지원을 위한 센터와 시험장비 구축을 목표로 추경안을 제안했다.

우주발사체 융복합 클러스터는 전남도가 세계 5대 우주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략사업으로, 6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건의한 ‘전남 공약 20대 핵심 과제’와 김영록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제시한 ‘전남 미래발전 5대 핵심 과제’에도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사업비는 추경안이 의회에 제출된 지 불과 10여 일 만에 집행부 자체 판단으로 절반이 삭감됐고 상임위와 예결특위도 그대로 통과시켰다. 도 관계자는 “한정된 국(局) 예산을 감안, 우주항공청과 협의해 연내 국가 지원을 받고, 삭감된 예산은 이후 추경안에 반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시스

달빛철도 에타면제 조속 확정	2면
국힘 김문수·한동훈 결선행	3면
비정규직 임금 최저	4면

장미로 물드는 하루

All Day Rose

2025. 5. 16^금 - 25^일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제15회 곡성세계장미축제